



# 보 도 자 료



(주소) 11307 /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46 (전화) 031-868-9610

배 포 일	2025. 5. 18.	쪽수	사진	기관 도메인주소	자료 문의
보 도 일	2025. 5. 19.				
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5월 나눔 교육 전시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		2	3	<a href="https://ngcm.ggcf.kr">https://ngcm.ggcf.kr</a>	부서: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담당: 김효기 전화: 031-868-9645

##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5월 나눔 교육 전시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

- ▶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, 문화취약계층과 진행한 나눔교육 결과물 5월 한 달 간 전시
- ▶ 숲을 온몸의 감각으로 체험하며 만든 어린이 작가들의 식물자화상 100여 점 전시

### ■ 개요

- 사 업 명: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
- 사업내용: 문화취약계층(발달장애, 문화누리카드 소지)과 진행한 나눔교육 결과물 전시
- 전시기간: 2025. 5. 1. (목) ~ 5. 31. (토)
- 전시장소: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층 로비
- 담 당 자: 김효기(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)

### ■ 행사 소개

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(관장 박종강)은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교육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를 지난 3~4월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5월 한 달간 전시한다.

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자연 감성을 풍성하게 채우고,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《내 마음은 풀 full》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었다. 《내 마음은 풀 full》은 다감각 체험을 기반으로 한 무장애 전시를 지향하며, 단순히 장애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, 발달 단계나 성향, 속도가 다양한 모든 어린이가 감각을 활용해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. 또한, 오감의 기능을 상징하는 박물관 캐릭터 '오감이'와 함께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을 보다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이와 연계하여 운영된 나눔교육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는 발달장애 아동 등 문화취약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. 참여 어린이들은 《내 마음은 풀 full》 전시를 통해 자연물의 형태, 촉감, 향기, 소리 등을 다채롭게 감각하고, 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 교육에서는 자연 재료를 활용해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며 촉각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다.

《숲에서 꿈꾸는 어린이》는 2025년 3~4월 동안 총 11회 운영되었으며, 약 150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여 100여 점의 작품이 완성되었다. 완성된 작품들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층 로비에 전시된다. 참여자들은 어린이 작가로서 어린이날 주간에 초청되어, 전시를 기념하는 작가 명패를 수여받는 특별한 경험도 갖게 되었다.

전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감각하며 표현한 생생하고도 순수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. “병아리콩은 진짜 병아리로 만든 거예요?”, “루페로 꽃을 보니까 개미 똥고 같아요.”, “향기 주머니에서 우리 엄마 냄새 나요.”와 같은 재치 있는 상상력은 물론, “사촌 동생 얼굴이에요. 이가 두 개밖에 없어요.”, “이건 괴물 얼굴이에요. 눈이 하나뿐이고, 절대 마주치면 안 돼요.”, “동물원에서 본 앵무새 얼굴이 계속 생각나요.” 등 자기 작품을 통해 전하는 어린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감상할 수 있다.

박물관 관계자는 “어린이가 자연을 다양한 감각으로 느껴 본 경험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첫 단추와 같다. 저마다의 개성이 가득 담긴 100여 점의 작품들을 감상하며, 참여자뿐 아니라 관람객들도 어린이 작가들이 느낀 자연 감수성을 공유하는 멋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